Stage 3 - More Stories B
At the Pool

Storytelling by Extended Stories

더 길고 자세한 이야기로, 더 높은 레벨의 수업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언어 노출을 통해 학생들의 언어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이해력과 상상력을 증진시켜 줍니다.

페이지 마다 읽은 내용에 관한 사실과 의견을 묻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over/Introduction

A really super new swimming pool had opened in the next town, so Wilma's mum took Wilf and Wilma, and Biff, Chip and Kipper. The children were very excited and they were all desperate to go in the pool, but things went wrong for Kipper when he went to change into his swimming trunks.
Poor Kipper made a mistake that really embarrassed him what happened was ... well, let's read the story and find out what happened.

옆 동네에 정말로 좋고 새로운 수영장이 생겨서 윌마의 어머니는 윌프, 윌마, 비프, 칩과 키퍼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들은 매우 신이 났고 수영장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했지만, 키퍼가 수영복을 갈아 입으려고 할 때에 문제가 생겼지요.
불쌍한 키퍼는 정말 부끄러운 실수를 했지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야기를 읽어보고 알아봅시다.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Have you ever been to a swimming pool? What was it like? 수영장에 가본 적이 있나요? 어땠나요?

Page 1

Kipper went to the swimming pool. It wasn't the swimming pool he usually went to with Mum or Dad. This was a really special pool that had only just been opened. He had come by car because this particular pool wasn't even in the same town where Kipper lived.

키퍼는 수영장에 갔습니다. 엄마 아빠와 자주 가던 수영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수영장은 생긴지 얼마 안 되는 특별한 수영장이었지요. 이 수영장은 키퍼가 사는 동네에 있는 것도 않았기 때문에 차를 타고 왔지요.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What do you think was special about this particular swimming pool?

그 수영장의 어떤 점이 특별할까요?

What sort of things make a swimming pool really good to go? 어떤 수영장이 가기 좋은 수영장일까요?

Page 2/3

Wilma's mum took him. She took Biff and Chip, too, and, of course, she took Wilf and Wilma.
'It looks brilliant in there,' said Wilf excitedly as he and the others looked through the glass screen. 'It's got trees growing on an island, and it's got a big waterfall splashing down.'
'It's got an inflatable, too,' said Biff, ' and there's one of those water-slide things like a big tube.'

'I hope they start the wave machine,' said Wilma. 'I love swimming in the waves.'
'You can jump in, then,' said Chip. 'That should make a few waves.'
'I'll get you for that,' laughed Wilma. 'Wait until we get in the water!'

윌마의 엄마가 데리고 갔습니다. 비프와 칩도 데리고 가고, 윌프와 윌마도 물론 갔지요.
"여기 정말 좋아 보인다." 윌프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유리창 너머로 안을 보았지요. "섬에는 나무도 있고 커다란 폭포도 있네."
"튜브도 있고, 큰 원통 같은 미끄럼틀도 있다." 비프가 말했습니다.
"파도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윌마가 말했습니다. "나는 파도 속에서 수영하는 것이 좋아."
"그러면 네가 뛰어 들어가. 약간의 파도가 일어날 거야." 칩이 말했습니다.
"너! 가만히 안 둔다!" 윌마가 웃었지요. "물에만 들어가 봐라!"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Why are the children so excited about going in the pool? 왜 모두들 수영장에 들어가고 싶어하지요?

What do you think the notice above Kipper's head is all about?

키퍼의 머리 위에 있는 알림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Do you think Wilma's mum is going to swim, too? 윌마의 엄마도 수영을 할 것 같나요?

It was a new pool and it had everything the children could think of - a sauna and a jacuzzi as well a gym where people could play badminton, basketball, and all kinds of sports.
'This place is ace!' said Kipper. 'But what's a jaspluzzi?'
'A **jacuzzi'** said Biff. 'It's one of those baths that whizzes bubbles through the water. You just sort of float in it and they shoot bubbles at you.'
'It sounds funny,' said Kipper.
The children found a place where they could look down at the pool. Of course, **everyone wanted to swim.**
'Come on,' called Kipper. 'I can't wait to go in.'

이 수영장은 새로운 수영장이었고 아이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사우나도 있었고 자쿠지도 있었고 배드민턴을 치거나 농구 같은 모든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체육관도 있었습니다.
"여기 정말 최고다!" 키퍼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푸지가 뭐지?"
"자쿠지야. 공기 방울이 나오는 목욕탕 같은 것이지. 그냥 떠 있으면 공기 방울들이 나와." 비프가 말해주었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아." 키퍼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수영장을 볼 수 있는 자리를 찾았습니다. 물론 다들 수영하고 싶었지요.
"가자, 빨리 들어가고 싶어." 키퍼가 말했습니다.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Point to the man who is the lifeguard. What does a lifeguard do?
Why is it important to have one in every pool?

누가 구조원인지 손으로 가리켜 보세요. 구조원은 어떤 일을 하지요?
왜 수영장에는 꼭 구조원이 있어야 하나요?

Why does the lifeguard have a whistle? 왜 구조원은 호루라기를 가지고 있나요?

Page 6/7

Wilma's mum went with the girls to the ladies' changing room while Chip, Wilf and Kipper went to get changed in the men's.

'You can share my locker,' Chip told Kipper. 'But make sure you put your clothes neatly in your bag.'

'You sound like Mum,' complained **Kipper**. He opened his bag and **looked for his trunks**, but **he couldn't find them.** He had everything in his bag except his trunks.

'I know I put them in my bag,' he said. 'I remember getting them out of my drawer.'

Wilf helped Kipper to search for his trunks, but Chip grew impatient. 'Hurry up,' he said, 'or we'll never get in the pool. I bet the girls have been in the water for ages.'

윌마의 엄마는 여자아이들과 여자 탈의실에 갔고 칩, 윌프와 키퍼는 남자 탈의실에 갔습니다.

"나랑 같은 라커를 쓰자. 그런데 옷을 니 가방에 잘 개서 넣어야 해." 칩이 키퍼에게 말했습니다.

"꼭 엄마 같아." 키퍼는 불평했지요. 키퍼는 가방을 열어서 수영복을 찾았지만 수영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었는데 수영복만 없었어요.

"내 가방에 분명히 넣었는데. 서랍에서 꺼낸 기억이 있는데." 키퍼가 말했지요.

윌프는 키퍼가 수영복을 찾는 것을 도와주었지만 칩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빨리 해 아니면 수영장에 못 갈 꺼야. 벌써 여자아이들은 수영장에 한참 전에 들어갔겠다." 칩이 말했지요.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What did Kipper have in his bag? 키퍼의 가방 안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What did his trunks look like? 그의 수영복은 어떻게 생겼나요?

Why was Chip getting impatient? 왜 칩이 참고 기다려주지 못했나요?

Page 8/9

'What shall I do?' asked Kipper. His voice began to sound trembly as if he was about to cry.

'Ask the attendant,' said Wilf. 'Perhaps he can lend you a pair of trunks.'

'Or perhaps he'll let you swim in your underpants,' said Chip.

The trouble was, neither Wilf nor Chip wanted to worry about Kipper's forgotten trunks. All they were interested in was getting into the pool as fast as they could.

When Kipper asked the attendant he said, ' I'm afraid you can't go in the water in underpants. Usually we have spare bathing trunks we can lend people, but we don't have any pairs for children at the moment.'

Without his trunks **Kipper couldn't go in the pool.' Sorry,' said the man.** 'Oh dear,' said Kipper, in a trembly voice.

"어떻게 하지?" 키퍼가 물었습니다. 키퍼의 목소리는 마치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이 울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자. 수영복을 빌려줄 수도 있어." 윌프가 말했습니다.

"어쩌면 속옷을 입고 수영하게 해줄 수도 있어." 칩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윌프도 칩도 키퍼의 잃어버린 수영복 걱정을 하기 싫었어요. 그냥 빨리 수영장에 들어가고 싶었지요.

키퍼가 일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속옷을 입고는 수영을 할 수 없단다. 원래는 빌려줄 수영복이 몇 개 있는데 지금은 아이들 수영복이 하나도 없구나."라고 말하네요.

수영복 없이 키퍼는 수영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하단다." 아저씨가 말했지요. "이런." 키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What rules are there in swimming pools? 수영장에는 어떤 규칙들이 있나요?

Why do you think they have rules like these? 왜 이런 규칙들이 있을까요?

How do you think Kipper feels? 키퍼는 어떤 기분일까요?

Page 10/11

Chip was right. **Wilma's mum was in the water** with Wilma and Biff. Chip jumped in and explained why they had been such a long time.
'Kipper has forgotten his trunks, and he's not allowed in the pool,' said Chip.
Wilma's mum sighed. **'Oh dear,' she said.** She could see Kipper in the entrance to the changing room. He looked as if he was about to cry. 'I suppose I had better get changed again and see what I do,' said Wilma's mum. 'And I was just beginning to enjoy myself, too.'

칩이 옳았습니다. 윌마의 엄마는 윌마와 비프와 함께 벌써 수영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칩은 물에 들어가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설명했습니다.
"키퍼가 수영복을 잃어버려서 수영장에 들어 올 수 없어요." 칩이 설명했습니다.
윌마의 엄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아주머니는 탈의실 입구에 있는 키퍼를 보았습니다. 키퍼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어요. "내가 다시 옷을 갈아입고 어떻게든 해 봐야겠구나." 윌마의 엄마가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막 재미있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What do you think Wilma's mum will do about Kipper's trunks?

윌마의 엄마가 키퍼의 수영복에 대해 어떻게 해 주실 것 같나요?

Do you think Kipper should just have to watch the others? After all, it was his fault the trunks were forgotten.

키퍼가 그냥 아이들을 보고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국 수영복을 잊어버린 것은 키퍼의 탓이니까요.

Page 12/13

So **Wilma's mum** dried herself and got changed. She **took Kipper to a shop** that sold sports equipment and had lots of swimming trunks.
She bought him new trunks that had stripes down them. Kipper liked stripes. Kipper was sorry he had caused so much trouble. 'I'll pay you back for the trunks out of my pocket money,' he said.
Wilma's mum smiled. 'Don't worry,' she said. 'These trunks can be a present from me to you. Now let's get back to the pool as quickly as we can.'
Kipper was pleased that Wilma's mum didn't tell the man why they had to buy the new trunks.

아주머니는 물기를 닦고 옷을 갈아입고, 운동 용품들과 많은 수영복 등을 파는 가게로 키퍼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주머니는 줄무늬가 있는 새 수영복을 사주셨지요. 키퍼는 줄무늬가 좋았습니다. 키퍼는 문제를 일으켜서 죄송했어요. "수영복 값은 용돈으로 드릴게요."
윌마의 엄마가 웃었어요. "걱정하지 말거라." "이 수영복은 아줌마가 주는 선물이란다. 자 이제 수영장으로 빨리 돌아가자."
키퍼는 윌마의 엄마가 왜 새 수영복을 사야 했는지 아저씨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기뻤습니다.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What sort of things can you buy in a sports shop? 스포츠 용품 가게에서는 어떤 물건들을 살 수 있지요?

What would Wilma's mum have thought of Kipper when he offered to pay her back for the new trunks?

키퍼가 수영복 값을 드리겠다고 했을 때 아주머니는 키퍼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Page 14/15

They went back to the pool and Kipper went into the men's changing room.
'Hooray!' said Chip and Wilf, when they saw Kipper's new striped trunks. 'Now we can all have a proper swim.'
Kipper began to take his trousers off. **'Oh no!' he said.**
Wilf and Chip could hardly believe their eyes.' Kipper, you idiot,' said Chip.
Poor Kipper. He was wearing his old trunks. He had them on all the time.

둘은 수영장으로 돌아갔고 키퍼는 남자 탈의실로 갔습니다.
키퍼의 새 줄무늬 수영복을 본 칩과 윌프는 "야호!"하고 소리쳤어요. "이제는 제대로 수영할 수 있겠다."
키퍼는 바지를 벗었습니다. "이런!"
윌프와 칩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키퍼, 이 바보야." 칩이 말했습니다.
불쌍한 키퍼. 키퍼는 자기의 원래 수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입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Have you ever made a mistake like Kipper's? What was it?

키퍼와 같은 실수를 한 적이 있나요? 어떤 실수였지요?

How do you think Kipper felt when he saw his mistake?

자기가 한 실수를 보고 키퍼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Page 16

When Kipper showed Wilma's mum what he had done, she couldn't help laughing. Kipper tried to explain, 'You see, **I put them on at home**,' he said.
'Never mind,' said Wilma's mum. 'Everyone makes mistakes.' Kipper was soon in the water and everyone had a wonderful time.
When they were ready to go, Kipper asked Wilma's mum if he could do something special. 'I want to give my old trunks to the man in the changing room.' he said. 'Then if another little boy like me forgets his trunks, he can borrow those.'
'What a nice idea!' said everyone.

키퍼가 아주머니께 어떻게 된 일인지 보여주자 아주머니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지요. 키퍼는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보세요. 집에서 수영복을 입고 온 거예요."
"괜찮단다."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두들 실수를 하지." 키퍼는 곧 물에 들어갔고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갈 시간이 되자 키퍼는 아주머니께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하면 안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탈의실에 있는 아저씨께 옛날 수영복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나 같은 남자아이가 수영복을 잃어버리면 이걸 빌릴 수 있게요." "정말 좋은 생각이다." 모두가 말했답니다.